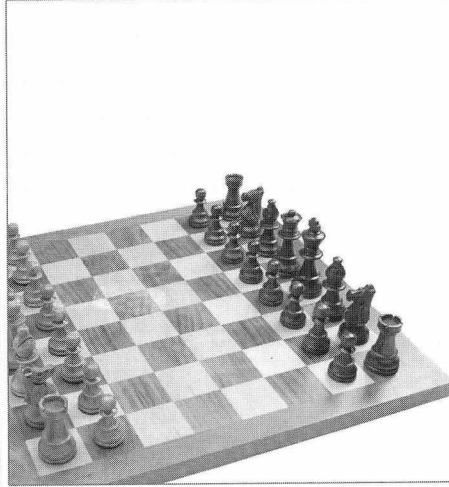


# 한·EU 등 FTA협상동향

*Free Trade Agreement*



## 01. 한·EU 등 FTA 협상동향

### 가.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 1 추진경위(推進經緯)

- 2003.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FTA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그동안 국내 준비작업을 신중히 진행
  - '06. 7월과 9월 EU측과 두 차례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의 관심사항 확인
  - '06. 11. 24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해당사자,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07. 5. 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협상추진에 대해 최종 결정
  - '07. 5. 6 만델슨 EU 통상담당집행위원 방한, 한·EU FTA 출범 공식 선언
- '07. 5월 7~11일간 서울에서 제1차 한·EU FTA 협상 개최
  - 협상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해 논의

#### 2 향후일정(向後日程)

- 농산물 양허방안 대응방안을 위한 준비작업 진행 (~ 6월말)
  - 품목단체 등 이해관계자, 농협·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
- '07. 7. 16~20일간, 브뤼셀에서 2차 협상 개최예정
  - 일부 협정문 초안(위생·검역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논의 및 본격적이 상품 양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
  - ※ 올해 총 5~6차례 협상 개최 예정

### 나. 1차 협상결과(協商結果)

#### 1 농업(農業)

- 상품분야 협정문에 대한 논의는 우리측이 잠정안을 제시하여 EU측의 의견을 청취
  - 양측은 WTO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농수산물을 포함한 전 품목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를 설치하기로 함
  - 다만, EU측은 WTO 특별세이프가드와 같이 자

동발동 방식의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 상품양허 관련, 양측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허수준을 높여 작성하되 예외적 취급방식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함

• 양허안은 10년 이내 관세철폐 비율을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 95% 수준(공산품은 100%)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2 위생·검역 및 지리적 표시

■ 위생·검역(SPS)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협정문 초안 없이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정보교환에 주력

■ SPS 분야에서 EU측은 검역현안 논의를 위한 양자간 협의체계, 지역화 인정 및 동물복지 등에 관심을 보임

• 우리측은 FTA 협상에서도 원칙적으로 WTO 협정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강조하고, 현안은 협상과 분리 검토할 것을 주장

■ 지리적 표시 관련 EU측은 지리적 표시의 상표 사용 가능성 및 침해시 구제제도 등에 대해 관심을 보임

• 양측은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2차 협상 전 관련 정보를 추가 교환하기로 함.

## 02. 한·아세안 FTA

### 가. 협상경위 및 관세인하 계획

■ '05. 2월 1차 협상 이후 17차례 협상 진행

• 1차 협상('06. 4)시 상품협상 타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06. 8)시 서명

- 현행관세 유지 71개 품목(HS 10단위), 향후 10년간 현행관세유지

- 226개 품목 등 297개 초민감 품목을 설정,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

■ 농산물 관세인하계획 타결 내용 【표1. 참조】

### 나. 향후 계획 및 전망

■ 상품협정은 국회 비준동의('07. 4. 2) 완료, '07. 6. 1부터 발효

■ 서비스·투자 분야는 금년 하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

【표1】 농산물 관세인하계획 타결 내용

구분	내용	품목수(HS 10단위)	주요 농산물	
초민감품목	A	2016년까지 50%이하로 감축	5	치즈, 사과, 배, 오렌지(실질적 현행관세유지)
	B	2015년까지 양허제외 2016년 1/5 감축	190	쇠고기(기타), 돼지고기(기타), 닭고기, 오리고기, 낙농품, 달걀, 녹용, 국화, 카네이션, 장미, 양란, 감자, 단옥수수, 녹두, 팥, 고구마, 호두, 밤, 잣, 대추야자,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포도, 복숭아, 두리안, 단감, 대추, 생강, 메밀, 전분, 땅콩, 참깨, 인삼, 참기름, 들기름, 소시지, 분유, 설탕, 혼합조미료, 기타가공식품
	C	2015년까지 양허제외 2016년 1/2 감축	36	맥주보리, 겉보리, 쌀보리, 옥수수, 맥아, 가공곡물, 오렌지주스
	D	TRQ 제공 현행관세유지	8	강낭콩, 메니옥, 메니옥 전분
	E	현행관세유지	58	쌀, 고추, 미늘, 양파, 녹차, 쇠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파인애플, 바나나, 감귤, 유장기타, 조제 식료품 등
민감품목	2012년 20%로 감축 2016년 5%로 감축	151	버섯, 당근, 호박, 고구마, 레몬, 매실, 꿀분, 아스파라거스, 캐슈넛, 과당, 맥아당, 만니톨, 기타 화훼류, 과당, 국수, 당면 등	

## 03. 한·캐나다 FTA

### 가. 추진현황 (推進現況)

- '05년 7월 협상 출범 이후 총 10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농산물 양허수준에 대한 양측 기대가 달라 협상에 어려움 많음
  - 캐나다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보리, 대두 등 일부 곡물에 대한 양허개선을 강하게 요구
    - ※ 캐나다측은 02~04년 평균 수입액 기준으로 적어도 99% 이상 관세 철폐 요구(현재 우리측 농산물 양허율은 수입액 기준으로 62.6%)
- 제10차 협상은 '07. 4. 23~26일 서울에서 개최
  - 양허안 · 협정문, 동식물 검역 등 농업 쟁점사항을 집중 논의
    - 농산물 양허협상에서 미합의 242개 품목 가운데 80여개 품목의 합의안을 도출
      - ※ 돼지고기, 식용설육, 신선토마토, 사료용 완두, 기타보리, 닭고기(기타조제), 유당 등
      - 쇠고기, 돼지고기, 보리류, 대두 등 캐나다측 관심품목은 차기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함

### 나. 평가 및 향후전망

- 캐나다측은 한·미 FTA 협상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미국과 상응하는 대우를 요구하고 있음

- 향후 협상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보리류, 대두 등 캐나다측 주요 관심품목의 양허개선 폭이 쟁점이 될 전망

## 04. 한·인도 CEPA

### 가. 추진현황 (推進現況)

- '07년 말 타결을 목표로 '06. 3월 이후 6차례 협상 개최
  - 1차 협상에서는 협상시한, 분과 구성 등 협상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논의
  - 2차~6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안 및 상품 자유화 방식을 논의
    - ※ '07년 타결목표로 협상 진행

### 나. 향후 계획 및 전망

- 제7차 협상은 '07. 7. 2~5 기간 중 인도에서 개최
  - 제7차 협상부터 상품 양허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예상
- 양국 모두 농업이 민감분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상품분야에서 인도측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분야가 농림 축산물 분야 외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 농산물 양허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

【표2】 상품양허 세부원칙

양허유형	한국			인도	
	시한	품목비율	시한	품목비율	
Normal Track	즉시	60%	즉시	88%	80%
	5년	28%			
	8년				
Sensitive Track	8년	5%	10년	5%	
양허제외	-	7%	-	15%	

## 05. 기타 FTA 동향

### 가. 한·중 FTA(漢·中)

- '05. 3부터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실시( '06년 말 종료)
- '07년 3월 22~23일 제1차 산·관·학 공동연구 개최(북경)
- '07년 6월과 9월에 2차 및 3차 공동연구 개최 예정  
※ 공동연구 단계에서부터 주요 농산물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

### 나. 한·호주/뉴질랜드 FTA

- '07년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여 1년 내 종료 계획

### 다. 한·Mercosur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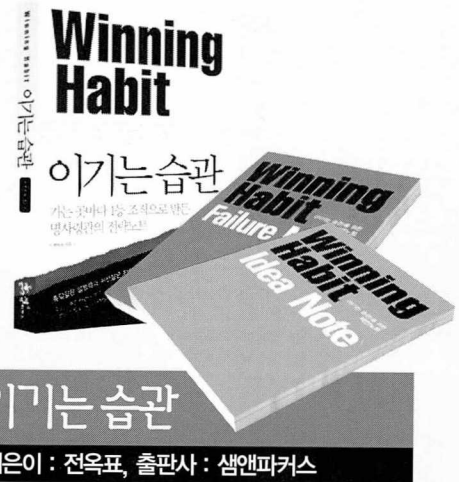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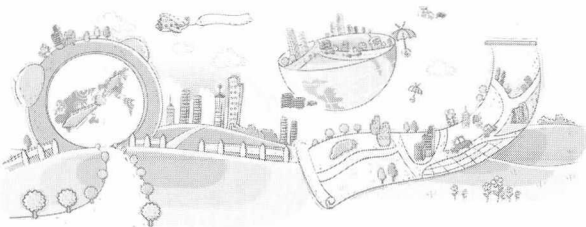
- '04. 11월 남미 정상 순방시 한·Mercosur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출범에 합의
- '06년 말까지 4차례 공동연구를 개최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본 협상 추진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

### 라. 한·일 FTA(漢·日)

- '03.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6차례를 개최
- 농산물 양허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

### 마. 한·멕시코 SWCA

- '06. 2월 협상개시 후 지금까지 총 3차례 협상을 진행  
- 농산물 양허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로 교착상태  
※ SECA:FTA보다 무역자유화가 낮은 수준의 협정



삼성전자의 마케팅 팀장, 유통 총사령관 등을 역임하면서 '1등 조직', '1등 인재'를 키워온 마케팅과 조직의 귀재, 전옥표가 그의 30여 년에 걸친 현장노하우를 담은 책.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이 책은 이렇게 충격적인 말로 시작한다. 그러나 2등은 쉽게 기억하지 않는 사회 현실에서 이는 꼭 명심해야 할 말이다. 『이기는 습관』은 '현장 경영'과 '고객 중심'이라는 화두로 모든 기업이 움직여야 하는 시점에서, 승리의 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고객과 현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기는 습관' 22가지를 알려준다. 본문은 '총알처럼 움직이기, 창조적 고통 즐기기,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화하기, 마케팅에 올인하기, 기본 놓치지 않기.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의 6가지 대주제 아래, '이기는 조직의 열정의 온도, 제안서의 차별화, 직원의 지독한 훈련, 실패의 교훈' 등 22가지 세부적인 습관을 설명한다. 특히 열정을 가지고 '기필코 1등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집요함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의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런 집요함은 마치 습관과 같아 끊임없는 실행을 통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직접적으로 돈 버는 수완이나 방법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비즈니스를 했을 때 반드시 곁을 넣을 수 있는 성공법이 담겨 있다.